

Dubai유, 34.66달러로 오름세

Yokos 파산우려에 나이지리아 파업 겹쳐 ... WTI 40달러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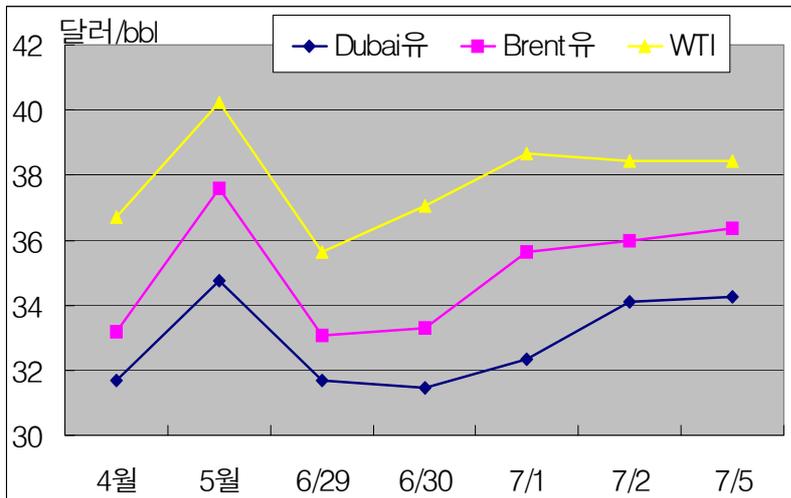
국제유가가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6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 Dubai유는 전날보다 0.42달러 오른 배럴당 34.66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39.66달러로 1.24달러 올랐으며, 북해산 Brent유도 0.71달러 상승한 37.07달러에서 장이 마감됐다.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8월물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도 전날보다 각각 1.26달러, 0.88달러 오른 39.65달러, 37.1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이라크 석유수출 감소와 러시아 Yukos의 파산 가능성, 나이지리아 파업 등 전반적인 공급 차질 우려의 영향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4/07/08>